

2016  
전북연구원  
정책브리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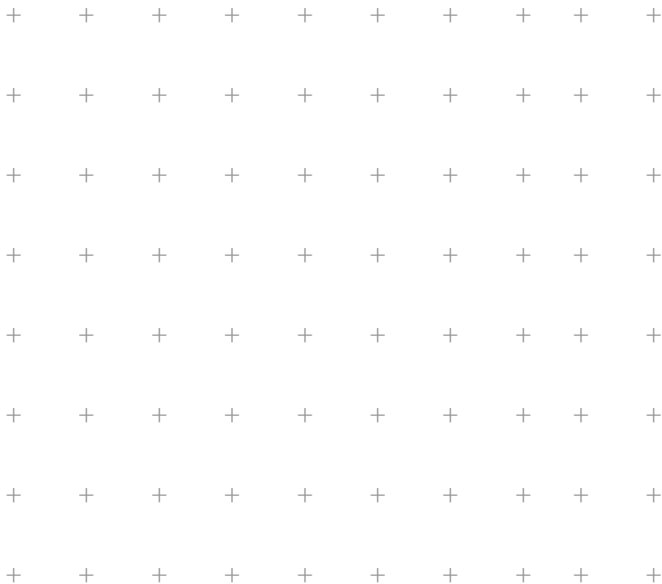
# Brief

vol.8  
2016. 08. 11

## 집필자

김수은 (창조경제산업연구부 부연구위원)  
장세길 (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)  
안동신 (창조경제산업연구부 전문연구원)

## 골목경제 활성화 전략, 이야기가 있는 생생골목을 만들자



Jeonbuk  
Institute

정책브리프 2016년 08월 11일 vol.8 발행인\_강현직 발행처\_전북연구원 주소\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 
TEL : 063)280-7100 FAX : 063)286-9206  
※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.  
※정책브리프는 홈페이지 ([www.thinkkr](http://www.thinkkr)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## C O N T E N T S

---

### 골목경제 활성화 전략, 이야기가 있는 생생골목을 만들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골목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.....         | 04 |
| 2. 전라북도 주요 골목자원 현황 .....             | 06 |
| 3. 전라북도 골목경제 활성화 전략 : 생생골목 만들기 ..... | 08 |
| 4.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.....       | 13 |

※이 자료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'전라북도 골목자원을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'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음

# SUMMARY

## 골목경제 활성화 전략, 이야기가 있는 생생골목을 만들자

- 골목경제의 공간은 골목으로 상징되는 동네 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거점 공간으로 소상공인, 주민 등 거주자가 골목경제의 주요 주체가 되며, 거주자는 생산, 판매, 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
  - 골목경제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상권의 범위가 작고, 대부분 거주민들의 생산, 거래 및 소비가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경제활동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
  - 골목경제의 주 생산자는 개인사업체 등 자영업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용, 매출, 소득 등의 측면에서 영세하며 경기변동에 취약
- 골목경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
  -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자동차가 증가하고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 상점이 골목상권에 침투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과 골목의 공동체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음
  -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재생, 사회통합, 자원 재활용, 지속가능한 발전 등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 가능
- 최근 골목경제 활성화에 있어 골목자원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있음
  - '서울 목2동 난쟁이마을'과 '광주 양림동 근대문화골목'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, 민·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
  - 그 결과 지역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 소득 및 일자리 등 경제성과 창출, 지역공동체 복원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
- 이 글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축 및 마을공동체의 가치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적의 경제단위인 전라북도 골목 및 골목자원 현황을 조사하고,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음
- 첫째, 1시군 1대표 생생골목 만들기
  - 해당지역의 특별한 문화, 역사, 예술, 음식, 인물 등 이야기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, 그 골목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골목경제공동체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확산 도모
- 둘째, 생생골목 협의체 구성
  - 생생골목경제 협의체는 지역주민, 상인, 소상공인, 마을기업(사회적기업), 활동가, 공무원, 지역(도, 시, 군)의원 등 사업과 관련된 구성원들로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운영
- 셋째, 생생골목 장소만들기
  - 골목 내 편의시설, 공동체시설과 골목경관 등에 지역의 디자인 개념을 도입·정비하여 랜드마크화 하고, 골목소식지, 골목지도 등을 배치하여 골목홍보 및 매력증진
- 넷째, 생생골목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
  - 지역 주민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(리더)를 양성하고 골목경제 공동체 정신을 갖추도록 교육과 지원
- 다섯째, 생생골목 패스라인 구축
  - 14개 시군 생생골목을 연계하는 관광패스라인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중인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과 연계하여 운영

### 〈골목경제 활성화 방향〉



## 1. 골목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

### □ 골목경제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(영세) 생활경제

- 골목경제의 공간은 골목으로 상징되는 동네 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거점 공간
  - 골목경제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상권의 범위가 작고, 대부분 거주민들의 생산, 거래 및 소비가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경제활동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
- 소상공인, 주민 등 거주자가 골목경제의 주요 주체가 되며, 거주자는 생산, 판매, 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
  - 골목경제의 주 생산자는 개인사업체 등 자영업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용, 매출, 소득 등의 측면에서 영세하며 경기변동에 취약

### □ 골목경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

- 골목경제 주체들의 활동은 사회공헌에 대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
  - 경제활동의 선순환, 공정거래, 신선한 먹거리 제공,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고용, 지역공동체 복원, 지역사회 생활여건 개선 등이 이에 해당
- 골목경제란 마을의 구성원들이 주도하여 경제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며, 마을 단위의 경제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골목을 마을의 커뮤니케이션 거점이자 생활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음
  -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자동차가 증가하고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 상점이 골목상권에 침투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모습과 골목의 공동체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음
  -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재생, 사회통합, 자원 재활용, 지속가능한 발전 등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 가능

### □ 골목경제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정책방향과도 맥락을 같이 함

- 박근혜정부는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

【박근혜정부 국정과제】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· 지역공동체 활성화(과제번호 115)

- 주민자치회 중심 지역공동체사업 추진

- 2015년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,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※2015년 시범사업 : 경북 영주(영주로 Young Village), 부산 서구(백년송도골목)

※2016년 공모사업 : 광주 남구(광주 음악의 거리), 전남 순천(변화위복 순천대학교), 강원 평창(양떼 동화마을)

### □ 최근 골목경제 활성화에 있어 골목자원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있음

-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객체로 여겨져 왔던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추진
- '서울 목2동 난쟁이마을'과 '광주 양림동 근대문화골목'의 경우 지역의 인적자원과 문화 ·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골목의 활성화에 기여

-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, 민·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
- 그 결과 지역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 소득 및 일자리 등 경제적 성과 창출, 지역공동체 복원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

〈서울 목2동 난쟁이마을〉



〈광주 양림동 근대문화역사골목〉



## □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필요

- 골목경제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(영세) 생활경제로 마을 단위의 경제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축 및 마을공동체의 가치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 최적의 경제단위
  -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, 고용창출, 지역 내 소득 순환시스템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단위인 골목경제와 골목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상인, 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
- 따라서 지역의 골목자원을 발굴 및 효과적 활용으로 지역 내 소규모 경제단위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가 지역경제 전체로 확산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창출 필요

## 2. 전라북도 주요 골목자원 현황

- 전라북도 골목자원 현황은 시군 행정의 협조를 받았으며, 골목규모, 입지(해당시군), 공동체조직 구성여부, 연계사업 추진현황 등을 기준으로 조사 및 분류
- 조사 결과 전라북도 골목자원은 총 24곳으로 다양한 유무형 가치를 가진 골목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음
  - 지역별로는 전주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, 고창 3곳, 군산, 정읍, 남원, 순창 등이 각각 2곳, 그 외의 지역들은 각각 1곳으로 조사·응답됨
  - 입지별로는 원도심 및 시군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골목 10곳, 관광지 10곳, 전통시장 3곳, 기타 1곳 등으로 나타남

〈전라북도 주요 골목 분포 현황〉



- 골목경제 공동체 핵심주체가 형성된 골목은 24개 골목자원 중 8곳이며, 나머지 지역은 상가변영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핵심주체가 없는 지역도 있음
  - 동문예술거리(동문예술거리 추진단), 웨딩의 거리 및 차이나 거리(비단길 프리마켓 운영위원회), 동국사가는길(문화공동체 감),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(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주민협의회), 정읍 생화차거리(생화차골목협동조합), 예가람길(예가람길 주민협의회), 고추장민속마을(협동조합 마을이상) 등
- 해당골목의 사업 및 활동 사항은 공동체조직 구성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
  - 동문예술의 거리,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, 예가람길, 동국사 가는 길 등 공동체조직이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사업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



〈전라북도 시군별 골목자원 현황〉

| 시군        | 골목명                | 골목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지       | 공동체조직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 및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주<br>(5) | 삼천동<br>막걸리골목       | 25개 막걸리 업소 밀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점가      | 삼천동<br>막걸리골목<br>상인연합회      | -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동문예술거리             | 문화예술 공연장, 음식점, 주점,<br>차집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도심      | 동문예술거리<br>추진단              | -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사업<br>(전라북도, 2012~2016)<br>- 시민문화공간(시민놀이터) 운영<br>- 창작지원사업(문화컨텐츠 개발지원)<br>- 예술교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웨딩의 거리             | 드레스대여점, 한복, 사진관,<br>여행사, 청첩장 인쇄소 등<br>결혼관련 업체 다수 밀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도심      | 비단길 프리마켓<br>운영위원회          | -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(국토부)<br>- 특화거리 조성사업<br>(전주시, 2007.12 완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영화의 거리             | 극장, 영화호텔 같은 영화관련<br>업소 및 음식점, 옷가게 등 상점<br>밀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도심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특화거리 조성사업<br>(전주시, 2012.12 완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차이나거리              | 화교소학교, 신흥상회, 국풍<br>등 중국관련 상점 3곳, 한복집,<br>세탁소, 기독교서점, 한약상 등<br>일반 상점 운영            | 원도심      | 비단길 프리마켓<br>운영위원회          | - 차이나 거리 조성사업<br>(전주시, 2003.10~2004.1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군산<br>(2) | 월명동<br>맛의 거리       | 콩나물 해장국, 생선탕, 갈비집,<br>국수집, 백반집 등 30~40여곳<br>밀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도심      | 상가변영회                      | - 마을가꾸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월명동 동국<br>사 가는 길   | 공방, 게스트하우스, 음식점 등<br>20여개 상점가 입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도심      | 문화공동체 감(感)                 | -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익산<br>(1) | 문화예술의<br>거리        | 소규모 공연장, 아트카페, 전통<br>차집, 화실과 공방, 갤러리 등<br>문화예술과 공방 중심의 거리<br>(맛집 26개, 예술공방 14개 등) | 원도심      | 익산문화예술의<br>거리 주민협의회        | -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<br>활성화사업(전라북도, 2012~2016)<br>- 경관협정 시범지구 선정(국토해양부)<br>- 사업활동<br>• 문화예술관련거점<br>(창작스튜디오, 문화매개 공간 '몽클')<br>• 프리바자회, 길거리공연,<br>주민문화학교, 거리방송국,<br>주민문화동호회 운영 |
| 정읍<br>(2) | 쌍화차 거리             | 전통차집, 인력사무소, 건강원,<br>차할인매장, 문화센터, 장애인<br>협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도심      | 쌍화차골목<br>협동조합              | - 전설의 쌍화차거리 조형물 및<br>안내판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방앗간 골목<br>(샘고을 시장) | 일반적인 전통시장의<br>시장상점과 방앗간 5여곳 밀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통<br>시장 | 상인연합회                      | - 문화관광형시장(2012~201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남원<br>(2) | 추여탕거리              | 광한루 주변 추여탕집 20여개<br>밀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광지      | 상가변영회                      | - 문화체육관광부 음식테마거리<br>관광활성화(201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예가람 길              | 공방, 카페, 학원, 음식점 등 20<br>여개 이상 상점 입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도심      | 예가람길 협의회,<br>예가람길<br>운영위원회 | -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(2012~2016)<br>- 수공예 능기부 무료체험<br>- 예그리나 거리공연<br>- 토요예술시장, 문화페스티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김제<br>(1) | 심포<br>횃집거리         | 조개구이, 회, 백반, 추여탕 등<br>음식점 15여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광지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새만금 내부개발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완주<br>(1) | 삼례역<br>참골목         | 삼례문화예술촌, 게스트하우스,<br>세계막사발미술관, 삼례성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광지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삼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<br>- 삼례문화예술촌 1, 2, 3단계사업<br>- 삼례문화예술촌 책마을 사업<br>- 세계막사발미술관조성사업<br>- 삼례역로 특화가로 정비사업<br>- 삼례시장현대화사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진안<br>(1) | 남부 마이산<br>등갈비거리    | 등갈비 음식점, 약재판매상,<br>공예품 판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광지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무주<br>(1) | 어죽거리               | 읍내 어죽집 5곳, 그 외 어죽집<br>10곳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광지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시군        | 골목명           | 골목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지       | 공동체조직        | 사업 및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수<br>(1) | 장수시장<br>먹거리골목 | 시장내 20여개 점포(음식관련은<br>국수집 2곳, 고깃집 1곳 운영) | 전통<br>시장 | 상인연합회        | - 전통시장 관련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임실<br>(1) | 운암<br>매운탕거리   | 비운영 매운탕집 5곳<br>운영매운탕집 4곳                | 관광지      | 없음           | -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순창<br>(2) | 순대촌<br>(순창시장) | 전통시장 내 5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통<br>시장 | 상인연합회        | - 전통시장 관련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고추장<br>민속마을   | 고추장 판매점 36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광지      | 협동조합<br>마을이장 | - 순창 고추장마을 조성사업<br>(2003~2007)<br>- 고추장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<br>(2015~2016)<br>- 한국 전통 발효문화산업 시범지구<br>(2015)<br>- 순창 장류축제(2005~) |
| 고창<br>(3) | 선운사<br>풍천장어길  | 풍천장어 전문 약45개 음식점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광지      | 상가번영회        | -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<br>(지식경제부)<br>- 우수와식업지구 육성사업 대상 지구<br>(농식품부, 2013)<br>-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고창복분자<br>와 수박축제(2013~)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구시포<br>쭈꾸미길   | 쭈꾸미 전문 음식점 20여개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광지      | 상가번영회        | - 구시포 쭈꾸미 축제(2012~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고창읍성 길        | 주변 옛거리 장터로 음식점 5<br>곳, 인근 상가 밀집지역       | 관광지      | 상가번영회        | -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<br>(2009~2013)<br>- 2016 자연마당 조성사업<br>(2016~2018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안<br>(1) | 물의 거리         | 음식점, 세탁소, 옷가게, 카페<br>등 50여곳, 소공연장       | 중심지      | 상가번영회        | - 물의거리 조성사업(2005~2006)<br>- 부안 마실길 축제<br>- 프리마켓, 콩클대회, 노래자랑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전라북도 골목경제 활성화 전략 : 생생골목 만들기

#### 1)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

- 골목경제란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주민 등 골목(마을)의 구성원들 주도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, 골목경제 활성화란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고려하며 지역의 공동체성을 복원·확산되는 것을 의미
- 따라서 '지속가능한 골목경제 공동체'를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방향은 '지역자원 활용', '지역주민 주도', '지역주민 체감' 등 3가지로 제시
  - 해당 골목 고유의 무형형 가치를 활용하되,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하여 골목경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공동체 복원 및 확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



## (1) 지역자원 활용

### □ 활용 가능한 유·무형 자원 발굴

- 전라북도 경제·사회·문화 등 해당 골목(지역)의 정체성 및 경제적 효과를 향상시킬  
있는 구체적 자원일수록 효과적임
  - 유형 자원 : 역사자원, 경관시설, 문화시설 등
  - 무형 자원 : 지역 유명인물, 무형문화재 등

### □ 골목경제 콘텐츠 개발·사업화

-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·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 
상품화 과정이 필요
  - 골목경제 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또는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여 지역 전체 및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 
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필요

## (2) 지역주민 주도

### □ 골목경제 협의체 구성

- 골목경제 협의체는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골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 
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,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조정 기능을 수행
  - 골목경제 협의체는 지역 주민, 상인, 지역 활동가 등 골목의 구성원으로 조직화하고,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

### □ 혁신리더 육성

- 지역의 골목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적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 
것이며, 혁신리더의 존재유무에 따라 골목경제의 성공 여부 결정
  - 즉 지역의 골목자원을 발굴하고 창조성을 발현하는 리더는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
- 혁신리더가 지역의 인적·사회적 자본을 선도하고,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며,  
지역혁신리더의 확고한 신념과 리더쉽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조직화했을 때, 원활한  
사업 추진가능

## (3) 지역주민 체감

### □ 매력있는 골목 조성

- 골목(지역)의 정체성 및 적합성을 반영하는 매력적인 공간은 지역 주민의 만남, 소통의  
장으로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,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는 매개가 됨
  - 지역 자원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해당 골목(지역)의 공간적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디자인 개념을  
도입하여 랜드마크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골목 경관 정비 필요

## □ 골목 커뮤니티네트워킹 지원

-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경제 공동체의 역량강화와 상호간 합의와 협력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
  - 골목경제의 주체들간에 화합과 연대를 강화하고, 공동체익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(워크숍, 동아리, 골목축제 등) 운영 필요

〈골목경제 활성화 방향〉



## 2) 골목경제 활성화 전략: (가칭)생생골목 프로젝트

### (1) 사업구상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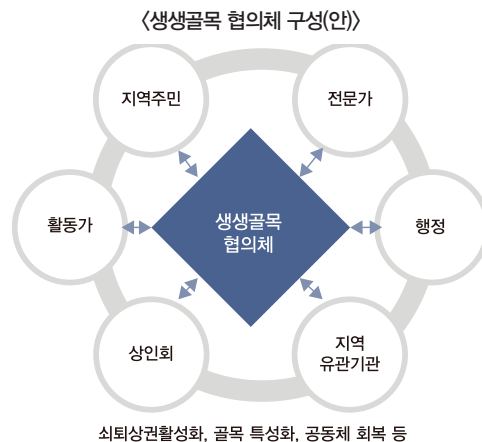
#### □ 1시군 1대표 생생골목 육성

- 목적 : 해당지역의 특별한 문화, 역사, 예술, 음식, 인물 등 이야기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, 그 골목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골목경제공동체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
- 사업대상 : 전라북도 14개 시군 내 이야기가 있는 골목
- 사업유형 : 골목은 골목자원의 유형에 따라 ①문화자원형, ②역사자원형, ③예술자원형, ④음식자원형, ⑤인물자원형 등으로 분류하고 공간적 특성에 따라 ①도심상권형, ②농촌중심지형으로 구분

| 구분       | 사업유형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원<br>유형 | ①문화자원형  | 지역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②역사자원형  | 지역 전통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③예술자원형  | 지역이 가진 예술적 특성을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④음식자원형  | 지역의 특산물, 음식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⑤인물자원형  | 해당지역과 관련있는 위인, 유명인을 자원화함으로써 골목 활성화(명소화)   |
| 공간<br>특성 | ①도심상권형  | 도내 6개 시지역(전주, 군산, 익산, 정읍, 김제, 남원)         |
|          | ②농촌중심지형 | 도내 8개 군지역(완주, 무주, 진안, 장수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) |

## □ 생생골목경제 협의체 구성

- 생생골목경제 협의체는 지역주민, 상인, 소상공인, 마을기업(사회적기업), 활동가, 공무원, 지역(도, 시, 군)의원 등 사업과 관련된 구성원들로 조직
  -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생생골목 만들기사업 주관
- 생생골목경제 협의체는 이사회, 실행위원회 등의 하위조직을 설치하고, 대표자를 선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



## □ 생생골목 장소만들기

-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서 골목을 명소화함으로써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집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(하드웨어+소프트웨어)개발이 필요
- 골목의 기반시설, 편의시설, 공동체시설과 골목의 경관을 지역의 디자인 개념을 도입·정비하여 랜드마크로 활용
- 골목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살아있는 생생골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골목해설사를 배치하고 골목소식지, 골목지도 등을 제작하여 홍보

## □ 생생골목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

-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는 골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,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은 역량개발 과정이라 할 수 있음
- 즉, 주민들의 단순참여가 아닌 골목 구성원들이 상호 합의와 협력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
  - 골목경제 공동체 역량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해 사업의 이해와 공유, 정보 제공 등의 워크숍을 주관하고, 마을축제, 동아리 등 공동체 네트워킹 지원
  - 지역 주민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(리더)를 양성하고 골목경제 공동체 정신을 갖추도록 교육과 지원

## □ 생생골목 패스라인 구축

- 생생골목 패스라인 : 전라북도 14개 시·군 생생골목을 잇는 교통, 음식·숙박, 관광, 체험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
- 추진방법 : 14개 시·군 생생골목을 연계하는 관광패스라인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중인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과 연계하여 운영

〈생생골목간 연계 패스라인 개념〉



## (2) 사업 추진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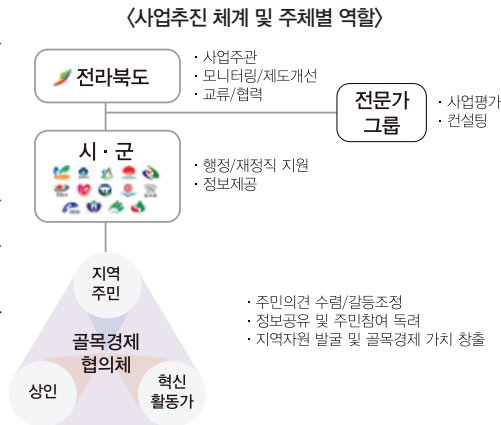
- 골목경제활성화(생생골목만들기) 사업은 해당지역이 가진 골목의 특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있어 상인·거주민 등 골목의 주체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
- 골목(지역)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및 골목경제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관기관인 전라북도와 시·군, 지역공동체, 유관기관 및 단체 등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력해야 함

## □ 골목경제 협의체

- 골목의 구성원인 주민, 상인, 활동가 등으로 골목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고, 해당 골목에 필요한 사업 아이템 발굴,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창조성이 발현된 사업을 계획·시행
- 골목경제 협의체는 골목경제 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전라북도 내 관련 유관기관 및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가능

## □ 전라북도

- 생생골목만들기 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재정지원 및 사업 선정기준, 평가체계 표준모델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기여
- 사업 추진 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골목경제 성공모델로 정착하도록 지도하고,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 시행



## □ 시군

- 지역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하에 생생골목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생생골목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명소화가 가능하도록 주변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, 인프라, 환경, 제도 등을 개선 및 정비

## □ 전문가 그룹

- 생생골목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,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관기관인 전라북도에서 관련 전문가그룹 구성
- 전문가 그룹은 사업단계별로 골목경제 협의체에 컨설팅 및 자문 지원

# 4.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

## 1) 영세소상공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제도 마련

-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위기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전통시장 및 지역 중심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왔지만,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골목경제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
  - 중소기업청 「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사업」의 경우 무등록·미인정 시장과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은 영세시장은 지원을 받지 못해, 전통시장 내에서도 정책지원 수혜에 있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
  - 국토부 「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」<sup>1)</sup>과 「도시재생사업」도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농복합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내 영세지역상권의 경우 사업지원의 기회가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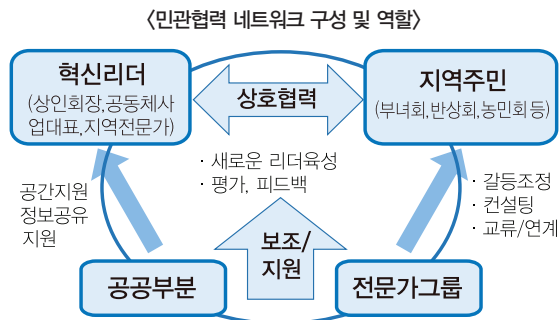
1)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시·광역시·시의 시·군·구 지역 중 도·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전 지역 대상

- 전라북도 서민경제 및 골목경제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영역 밖에 있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골목경제의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 지원 필요
- 이를 위하여 영세한 골목경제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, 정부시책과 별도로 골목경제 활성화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

## 2) 골목경제 활성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

-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 전제조건이며,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공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음
  - ‘목2동 골목경제 활성화 사례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이 활성화될 때,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,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정착될 때, 골목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
- 따라서 지역 혁신리더, 지역주민, 행정, 전문가 등이 상호협력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
  - 혁신리더는 지역주민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리더 육성, 사업의 평가 및 피드백을 공동으로 수행
  - 공공부문과 전문가그룹은 혁신리더와 지역주민주도의 사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



자료: 김선기 · 이소영(2007), 이정석(2013)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



### 3) 젠트리피케이션<sup>2)</sup>에 대한 적극적 대응

- 최근 홍익대 인근, 상수동, 경리단길, 삼청동, 신사동 가로수길 등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지역에 예술가들의 유입으로 갤러리, 공방, 소규모 카페 등이 생겨났으며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됨
- 이에 따라 대규모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입점하게 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자 원주민들과 기존의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(gentrification)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, 그 결과 기존의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가진 골목은 사라지고,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화하게 됨
- 따라서 서민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골목의 가치와 영세한 원조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, 소속 골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및 지속적 참여가 필요함

#### 〈보호상업구역 지정(프랑스 파리)〉

- 프랑스 파리는 2006년 소매업과 수공업 보호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인 「파리도시계획」을 수립하면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정거리를 '보호상업구역'으로 지정
- '보호 상업구역'으로 지정되면, 건물 1층에 입점한 기존 소매점과 수공업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음

#### 〈서대문구 신청 상권 임대료 안정화 협약 체결(2014. 2. 28)〉

-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의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'신촌상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 체결
- 협약내용은 ①건물주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(5년)의 월세와 보증금 증액 청구 불가 ②신촌상권 활성화 저해 행위 저지 ③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으로 구성

#### 〈서울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과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지정(2015)〉

제5조(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기본원칙) 제1항

1.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
2.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
3. 지역활동가 등의 활동 환경 조성 및 지원
4. 지역 문화 가치 향상 및 주민역량 강화

2) 젠트리피케이션: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,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클래스(R.Glass)가 처음 사용했음  
(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참고)

## 참고자료

- 김선기 · 이소영(2007), 「주민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모형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- 김현호(2013), 「지방자치단체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- 박진경(2015), 「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- 전대욱 · 박승규 · 최인수(2012), 「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- 장세영, 「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문화매개자의 역할 분석-광주광역시 양림동을 중심으로」,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, 2015
- 신선화 · 최강림(2012), “서점을 주제로 한 특화거리조성 사례분석-부산시 ‘보수동 책방골목’을 중심으로”,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, Vol.12, No.12, 2012
- 이용성 · 정석(2008), “참여주체관점에서 특화거리의 활성화 요인 분석-분당신도시 정자동카페거리 조성사례를중심으로”,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pp.509-519
- 이정석(2013), 주민주도 지역혁신의 필요성과 성공조건, BD포커스, 부산발전연구원
- 진영호(2012), “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이 공생하는 상권만들기”, 국토 370
- 충청남도(2014), 「군 관련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」
- 행정자치부(2010), 「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육성전략 실천 프로그램 개발」
- 행정자치부(2013), 「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」
- 홍인옥(2012), 「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:종로노점거리를 중심으로」, 서울연구원